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과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이 아동과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자녀 성별의 중재효과

Effects of Internet-Use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and
Warm/Rational Parenting Style on Children's and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Moderation of Child Gender

김 현 수*

한양대학교

Kim, Hyun-soo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최 정 연**

하늘 발달상담센터

Choi, Jung-yeon

Hareul Developmental Counseling Cente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oderation of child developmental stage and gender in the effects of parental internet-use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internet control behavior) and warm/rational parenting style (warm/rational parenting) on child internet addiction. Two-hundred-thirty 3rd graders (105 male children and 125 female children) and 216 8th graders (126 male adolescents and 90 female adolescents) residing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by filling out the self-report internet addiction scale, parental internet-use controlling behaviors scale, and parental warm/rational parenting style scale. The correlation analys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including an interaction term (either warm/rational parenting×gender or internet control behavior×gender) were conducted to address the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found a significant moderation of child developmental stage and of child gender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control behavior and child internet addiction, no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arm/rational parenting and child internet addiction. Specifically, this study found a negative effect of parental internet control behavior on child internet addiction only in the male adolescent group. For the rest of the groups (male and female child groups and female adolescent group), high levels of parental internet control behavior were related to low levels of child internet addiction, revealing beneficial effects of parental internet control behavior on child internet addiction. On the other hand, no significant moderation of the child developmental stage and gender was found between parental warm/rational parenting and child internet addiction, revealing that parental warm/rational parenting decreased levels of child internet addiction in all four groups (male child, female child, male adolescent, and female adolescent groups). The study suggests that parents need to understand their children'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nd gender when restricting their children's internet use to yield better results on child problematic use of the Internet.

주제어(Keywords) : 아동 인터넷중독(child internet addiction), 청소년 인터넷중독(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internet-use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warm/rational parenting style), 자녀 성별(child gender), 중재(moderation)

* 주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부교수(E-mail: khs1004@hanyang.ac.kr)

**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E-mail: sodapophoi@gmail.com)

I. 서론

정보 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개인용 IT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은 적절히 사용될 경우 지식과 정보 획득에 있어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 학습, 놀이문화,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유수경, 2006). 하지만 지나친 인터넷의 사용은 두통, 불면과 같은 신체적 증상과 신체 발달 저해를 야기하며(한국정보화진흥원, 2014; Griffiths, 2000; Kandell, 1998; Young, 1999), 우울, 불안, 공격성과 같은 정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김현수, 채규창, 임연정, 신윤미, 2004). 이에 적절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특히 자기통제 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인터넷 사용 방안의 도출이 시급하다.

2014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실시한 한국인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의 99%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 연령 중 10대에서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 검색, 학습, SNS, 의사소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대인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매체가 되고 있기에 아동·청소년 이용자 수의 증가와 사용량 증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문영임, 구현영, 박호란,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반감을 높이는 부적절한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확인된 요인에 변화를 야기하여 인터넷 사용에 있어 허용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아동, 청소년 인터넷 사용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이들의 인터넷 사용 조절에 유용한 함의를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관련 문헌은 개인과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아동, 청소년 인터넷 사용 조절에 있어 원인적 혹은 위험/보호 요인으로서 관여함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는 가정환경적 요인이 개인적 요인보다 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있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정연, 최영선, 2002). 가정은 아동과 청소년이 몸을 담고 있는 일차적 환경으로 아동, 청소년의 전반적 발달뿐 아니라 이들의 문제행동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남영옥, 이상준, 2004; Belsky, 1984; Gardner, 1992). 이 중 부모의 양육행동, 특히 자녀의 인터넷 사용 상황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을 지도하거나 행동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은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개입 양육행동(이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이 아동,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점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만철, 오익수, 2002; 권재환, 2005;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전춘애, 박철옥, 이은경, 2008; 조춘범, 2001). 반면, 초등학교 대상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행동적 통제가 초등학교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김기숙, 김경희, 2009; 박용철, 2011; 양명숙, 조은주, 2011)가 보고되고 있어 결과 간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에서의 차이는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침에 있어 발달단계가 중재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비록 자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었으나 부모 영향에 있어 자녀 발달단계의 중재 가능성은 부모 양육 문헌들에서 일부 시사되고 있는 바(e.g., Deater-Deckard & Dodge, 1997; Soenens, Vansteenkiste, Smits, Lowet, & Goossens, 2007), 인터넷 중독 분야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관련 가설의 검증은 자녀 인터넷 사용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부모 행동을 만들어 감에 있어 자녀 발달단계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그 임상적, 교육적 가치가 크다 하겠다.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양육 관련 변인은 부모의 양육 스타일(parenting style)이다. 앞서의 부모의 자녀 인터넷 사용통제가 특정 상황에서의 구체적인 부모 행동이라면, 양육스타일은

부모의 양육 태도, 목표, 양육 행태를 총괄하는 전반적인 부모 특성을 말한다(Darling & Steinberg, 1993; Maccoby, 1992). 통제라는 부모 특성에 적용한다면, 통제적 양육스타일(parenting style)은 “우리 부모는 매사 내 행동을 간섭한다”가 될 수 있고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은 “우리 부모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면 수시로 간섭한다” 혹은 “우리 부모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인터넷을 쓰게 한다”와 같이 인터넷 사용이라는 구체적 상황 맥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될 수 있다. Darling과 Steinberg(1993) 그리고 Maccoby (1992)는 아동의 정서적 혹은 행동적 결과물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육스타일이라기 보다는 양육행동이라 주장하였다. 반면, 양육스타일은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의 전반적 맥락(context)이나 분위기(climate)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양육행동과 양육스타일 이 두 개념은 자녀의 정서, 사회, 행동 결과물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양육 연구의 최신 추세가 양육스타일(parenting style)과 각 상황에서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을 구분하며 이들 변인이 자녀에게 주는 차별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어(Darling & Steinberg, 1993; Maccoby, 1992; Kim, 2009), 특수한 상황 맥락에서 나타나는 통제적 부모양육행동이 아동과 청소년 자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함과 더불어 부모-자녀 간 긍정적 관계 맥락 조성에 공헌한다고 가정되는 온정, 수용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

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조명하는 시도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도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도는 온정, 수용 양육은 곧 긍정적 결과를 내는 양육, 간섭, 통제 양육은 곧 부정적 결과를 내는 양육이라는 단순하고 과일반화된 사고에서 탈피하여 양육행동과 양육스타일 간 자녀 행동 결과물 양산에 있어서의 차별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또한, 자녀에게 유리한 부모 특성을 부모 교육이나 개입에 포함시키는 데도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실제로, Kim(2009)은 부모의 온정과 수용이 자녀의 사회적 회피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사회불안을 조장하거나 사회불안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수용과 온정이 특정 상황에서는 역기능을 양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논리를 반대로 적용해보면, 통제나 간섭의 부모행동도 특정 상황에서는 순기능을 양산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 연구들은 부모 변인과 아동, 청소년 인터넷 중독 사이의 관계가 자녀 성별에 의해 조절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 양육이 자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녀 성별이 유의한 중재적 역할을 함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어(김현수, 2017; Brown, Oduyungungbo, Thabane, Byrne, & Smart, 2010; Cumminghan, Kliever, & Garner, 2009; Griffin, Botvin, Scheier, Diaz, & Miller, 2000; Kim, 2017), 부모 양육행동이나 부모 양육스타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서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물론 인터넷 중독이 결과변인으로 포함된 경우는 없었으나, 연구들이 다양한 심리, 사회, 행동 결과물에 대한 부모 영향에서의 성별의 중재효과를 보여주고 있어 인터넷 중독에서도 이러한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차이를 보였던 결과들을 재정리하고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아동기와 청소년기 두 발달 단계에 있는 대상군을 추출, 각 대상군에서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양육행동과 양육스타일을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념화하며 양육행동의 자녀에의 효과를 분리해서 이해하길 강조하는 최근 양육연구 분야의 동향을 반영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온정/합리적 설명이라는 긍정적 부모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조명해 보았다. 온정/합리적 설명이라는 양육스타일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문제행동 발달을 예방, 혹은 제지하는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문헌에서 시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온정/합리적 설명 양육스타일의 긍정적 영향이 아동과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 현상에도 적용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조명하지 않았던 자녀 성별의 중재 가능성에도 초점을 두어 부모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과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이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녀 성별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기 집단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청소년기 집단으로 중학교 2학년생을 대표 표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자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및 훈련을 구성함에 있어 자녀 발달단계와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에 중요한 정보와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 및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과 아동 및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 간에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둘째,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이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 관계에서 성별은 중재역할을 하는가?

셋째,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이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 관계에서 성별은 중재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를 위해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개교 3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1개교 2학년 학생들을 임의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교별로 균등 배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 설명을 제공하였고 연구

참가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해 설문을 진행하였다. 초등학생 230명, 중학생 230명, 총 460명이 연구 참가에 동의하였고 설문을 완성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최종 44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초등학생 자료 중 남아 자료는 105명(45.7%), 여아 자료는 125명(54.3%)이었고, 분석에 포함된 중학생 자료 중 남아 자료는 126명(58.3%), 여자 자료는 90명(41.7%)이었다.

2. 측정도구

1) 자녀의 인터넷 중독 정도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6)이 개발한 간략형 인터넷 중독 아동·청소년 자가진단검사(K척도 Short form: KS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20개 문항(예, “인터넷 사용으로 건강이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다”, “인터넷을 하지 못하면 안절부절 하고 초조해 진다”), 6개 하위차원(일상생활장애 6문항, 긍정적기대 1문항, 금단 4문항, 가상적대인관계 3문항, 일탈행동 2문항, 내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형식(1=전혀 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요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점수 범위는 20~80점이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2)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인터넷 사

용에 대한 부모의 직·간접적 통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이시형 외(2000)가 개발하고 조춘범(2001)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7문항(예, “시간을 정해놓고 인터넷을 쓰게 하신다”, “인터넷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말씀하신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자녀 인터넷사용 통제행동 각 문항은 4점 Likert 형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67이었다.

3)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온정 및 합리적 설명 양육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총 43개 문항 중 애정 6문항(예,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겨워하신다”)과 합리적 설명 5문항(예, “부모님이 화를 내시는 이유를 잘 설명해주신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형식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온정과 합리적 양육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척도 점수를 합산하여 부모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 점수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11문항의 Cronbach's α 는 .76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통계 소프트

웨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2.0을 사용하였다. 먼저,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 부모의 애정/합리적 양육스타일, 그리고 각 발달시기(아동기,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발달단계별로 각 부모 양육변인(양육스타일과 양육행동)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변인과 자녀성별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킨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이 자녀 인터넷 중독을 유의하게 설명한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의 파악을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단순기울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과 청소년 집단에서의 연구 변인들 간 상관

부모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과 부모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 그리고 자녀 인터넷 중독 점수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 발달단계와 자녀 성별의 중재효과 검증이 이 연구의 주요 연구 목표였기 때문에 상관분석은 발달단계별 그

<Table 1> Correlation matrices among child internet use, internet-use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and warm/rational parenting styl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N=230, Adolescent N=216)

Dev. Variables	Girls			Boys		
	1	2	3	1	2	3
1=Child internet addiction	-			-		
2=Internet use control beh	-.25*	-		-.44**	-	
3=Warm/rational parenting	-.36**	.24**	-	-.37**	.27**	-
Child						
Item M(SD)	1.21(.29)	2.61(.68)	3.42(.64)	1.34(.37)	2.54(.74)	3.35(.74)
Skewness	2.62	-.05	-1.14	1.36	-.16	-1.33
Kurtosis	8.35	-.42	.56	1.65	-.89	1.17
Adol.						
1=Child internet addiction	-			-		
2=Internet use control beh	-.26*	-		.65***	-	
3=Warm/rational parenting	-.33**	.16	-	-.39**	-.25**	-
Item M(SD)	1.31(.33)	2.46(.63)	3.32(.56)	1.54(.47)	2.52(.65)	3.11(.65)
Skewness	1.28	-.25	-.79	1.36	-.07	-.49
Kurtosis	1.35	.30	.17	2.46	-.63	-.24

Note Dev.=developmental stage; Adol=adolescent; Internet use control beh=Internet use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Warm/rational parenting=warm/rational parenting style; * $p < .05$, ** $p < .01$, *** $p < .001$ (all two-tailed).

리고 각 발달단계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따로이 진행하였다. 결과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에는 상관계수뿐 아니라 발달단계별 그리고 각 발달단계에서의 자녀성별 별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치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에서는 여아와 남아 간 변인 간 상관 패턴에 있어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은, 여아 남아 상관없이,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 및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청소년의 경우, 여아와 남아는 변인간 상관 패턴에서 눈에 띄

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여아는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과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 유의한 부적 상관($r = -.26, p < .05$)을 보인 반면 남아는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과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 유의한 정적 상관($r = .65, p < .001$)을 보였다. 한편,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과 자녀의 인터넷 중독은 여-남아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여자 청소년 $r = -.33, p < .01$; 남자 청소년 $r = -.39, p < .001$), 이는 아동에서의 관련 결과와 유사하였다(여자 아동 $r = -.36, p < .001$; 남자 아동 $r = -.37, p < .001$).

2. 아동과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의 인터넷 사용통제 양육행동이 자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자녀 성별의 중재효과 검증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아동과 청소년 자료 각각에 대해 단계1에서는 자녀성별 변인을, 단계2에서는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이라는 부모변인을, 단계3에서는 자녀성별 변인과 부모변인을 곁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2>의 상단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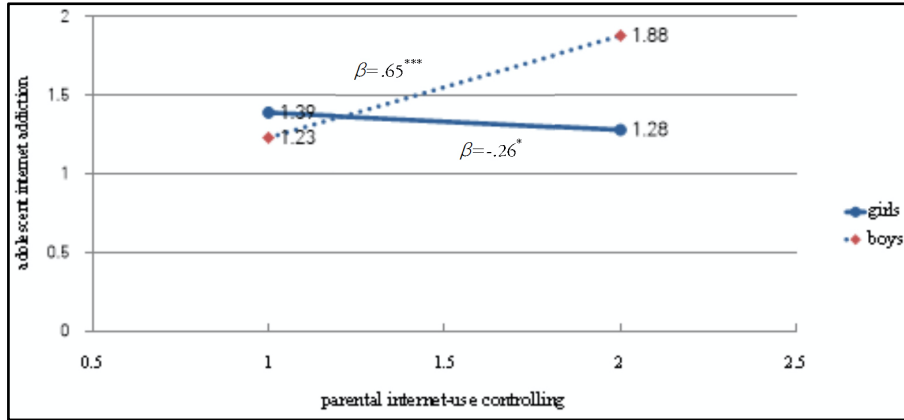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양 집단에서 아동 성별과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이 자녀 인터넷 중독의 예측에 있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인인 것으로

발견되었다(see upper half in <Table 2>).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더 높아 남아가 여아보다 인터넷 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의 영향은,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별 변인의 인터넷 중독에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11~12%정도의 설명 증분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과 청소년에 있어 그 방향성이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동에서는 부모의 통제행동이 아동 인터넷 중독 점수를 유의하게 낮추는 방향으로, 청소년에서는 부모의 통제행동이 아동 인터넷 중독 점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ee β and ΔR^2 in step 2).

<Table 2> Summary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test gender moderation between parental parenting variable (internet-use controlling behavior and warm/rational parenting style) and child internet addiction (Child N=230, Adolescent N=216)

Criterion	Child Internet Addiction				Adolescent Internet Addiction			
	Step1 β	Step2 β	Step3 β	ΔR^2	Step1 β	Step2 β	Step3 β	ΔR^2
Child gender(A)	.20**	.18*	.18*	.039**	.26***	.25***	.26***	.069***
Controlling beh(B)		-.34***	-.33***	.117***		.34***	.32***	.114***
A×B			-.12	.014			.44***	.195***
Final Model F (R^2)		15.48*** (.170**)				43.00*** (.378**)		
Child gender(A)	.20**	.18**	.18*	.039**	.26***	.20**	.21**	.069***
Warm/rational style(B)		-.36***	-.36***	.128***		-.36***	-.35***	.128***
A×B			-.02	.000			-.06	.004
Final Model F (R^2)		15.19*** (.168**)				17.75*** (.201**)		

Note. gender dummy coded (0=female, 1=male); Controlling beh=Internet-use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s; Warm/rational style=warm/rational parenting style; * $p < .05$, ** $p < .01$, *** $p < .001$ (all two-tailed).



[Figure 1] Moderation of child gender between internet-use controlling parenting behavior and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 중 하나인 각 발달단계에서의 인터넷 사용 통제 부모양육행동이 자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녀 성별의 중재 효과를 살펴보면, 아동에서는 성별의 중재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청소년에서는 성별이 두 변인간 관계를 유의하게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e β and ΔR^2 in step 3). 중재의 양상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 남자 청소년에서는 높은 부모의 자녀 인터넷 사용 통제가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발견된 반면($\beta = .65, p < .001$), 여자 청소년에서는 높은 부모의 자녀 인터넷 사용 통제가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낮추는 것으로 발견되었다($\beta = -.26, p < .05$). 청소년 인터넷 중독 점수에 자녀성별 \times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의 상호작용항이 야기한 설명량의 증분은 19.5% ($\Delta R^2 = .195, p < .001$)로, 이는 상당히 큰 정도의 설명 증분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전체 점수의 37.8%가 자녀성별, 부

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 그리고 두 변인 간 상호작용항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ee Table 2).

3. 아동과 청소년 집단에서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이 자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자녀 성별의 중재 효과 검증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아동과 청소년 자료 각각에 대해 단계1에서는 자녀성별 변인을, 단계2에서는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을, 단계3에서는 자녀성별변인과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을 곁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2>의 하단과 같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양 집단에서 아동 성별과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은 모두 자녀 인터넷 중독 예측에 유의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고 그 관계성 또한 아동과 청소년 집단에서 모

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β and ΔR^2 in step 3). 연구문제 2의 인터넷사용통제 부모 양육행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beta=.18, p<.01$)과 청소년($\beta=.21, p<.01$) 모두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인터넷 중독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은 자녀성별과 비교해 더 높은 설명력을 가진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높은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은 아동($\beta=-.36, p<.001$)과 청소년($\beta=-.35, p<.001$) 자녀 모두에서 인터넷 중독을 낮추는 긍정적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see Table 2). 또한, 부모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의 영향은, <Table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성별 변인의 인터넷 중독에의 영향을 통제하더라도 13%의 설명 증분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이 자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녀의 성별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성별의 중재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정/합리적 부모양육스타일이 남자와 여자 아동, 청소년 모두에게 인터넷 중독을 낮추는 긍정적인 부모 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IV. 결론 및 논의

부모의 인터넷사용 통제 및 관리감독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는 있으나, 변인간 관계의

방향성은 연구마다 상이한 실정이다.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상세 분석해 보면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부모 변인, 특히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발달단계의 중재가 부모행동과 자녀 인터넷 중독 간에 실제 나타나는지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양육스타일(parenting style)과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s) 간 자녀 결과물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가정하는 최근 양육분야 연구 추세에 편승하여,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 선택, 이 양육스타일을 인터넷사용통제라는 구체적인 양육행동과 비교하여 자녀 인터넷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행동의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이러한 자녀 성별의 중재효과가 인터넷 중독이라는 현상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보았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종합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는 발달시기의 중재와 아동성별의 중재 효과 모두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발달시기와 아동성별의 중재는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과 자녀 인터넷 중독 간 관계에서만 관찰되었다. 즉,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은 아동과 청소년 모두에서, 그리고 각 발달집단의 남, 여 모두에서 일치는 방식으로 자녀의 인터넷 중독 점수에 영향을 미쳤는데, 높은 온정/합리적 양육스타일은 남녀 아동과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인터넷 중독 점수를 낮추는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발달시기의 중재 효과는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과 자녀 인터넷 중독에서만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러한 특징은 남자 청소년으로 인해 기인한 결과로, 여자 청소년, 그리고 남녀 아동 모두는 부모가 인터넷사용통제 행동을 취하면 취할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아지는 긍정적 영향을 받은 반면, 남자 청소년은 부모의 인터넷사용통제 행동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점수가 높아지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이는 특히 청소년 인터넷사용통제 양육행동 관련해서 성별의 중재까지도 있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녀 인터넷의 문제적 사용 개선을 위해 개입할 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연구결과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나 인터넷의 문제적 사용을 예방,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가 온정이나 합리적 설명이라는 자녀 행동 교정에 유리한 가정 맥락적 혹은 관계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온정/합리적 설명의 자녀 인터넷의 문제적 사용 혹은 중독에의 긍정적 함의는 자녀의 발달단계가 아동기이든 청소년기이든 그리고 자녀의 성별이 남아이건 여아이건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인터넷 중독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먼저 이러한 양육 태도나 스타일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부모가 구체적인 인

터넷 사용 관련한 통제를 가할 경우 자녀의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즉, 되도록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여아에게만 이러한 직접적 관여나 통제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남아에 있어서는 부모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좋은 관계 맥락을 만드는 온정적 양육이나 합리적 설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자녀가 발달단계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각 단계마다 제기되는 욕구나 부모 양육에 대한 반응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부모는 이러한 자녀 욕구와 반응성에 맞게 자신의 자녀 양육방법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로, 효율적인 부모 역할을 위해서는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사용 통제/감독/지도를 위한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었으나, 이들 연구는 자녀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효과적이고 차별적인 지도 방안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 실정이었다. 부모 인터넷사용통제행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본 연구는 차별적 지도에 대한 근거와 방향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나 가족 맥락/분위기 조성에 유리한 양육스타일을 가지는 것이 아동, 청소년

기 자녀 모두에게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이다. 인터넷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 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아동,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발달단계, 성별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여 해당 특성에 맞춤형된 접근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부모 특성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자녀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부모 교육 및 훈련 접근은 어떤 목표와 내용을 담아야 할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도심 지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부모 특성, 특히 부모의 양육 관련한 이질성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는데 한계를 지녀 결과적으로 결과 일반화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에 국내 부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하는 부모집단을 표집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조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발달단계를 아동기와 청소년기(청소년 초기)에 집중하여 부모변인과 자녀 인터넷 중독 간 관계에서 발달단계와 성별의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추후 연구는 더 어린 연령의 자녀(예, 영유아기, 혹은 아동기 초기), 그리고 청소년기 후기와 성인기 초기 자녀들까지 포함시켜 부모 양육스타일과 양육행동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온정/합리적 양육

스타일의 증진 요소와 대상군에 맞춤형된 인터넷사용통제 부모 양육행동적 요소를 포함한 부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를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차원에서 살펴보는 추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만철, 오익수 (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진단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16(4), 247-274.
- 권재환 (2005). 심리적 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중독 간 관계: 대인관계 기술의 매개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숙, 김경희 (2009). 초등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변인. *아동간호학회*, 15(1), 24-33.
- 김현수 (2017). The effects of parental management of peer relationships o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social skills, friendship qualities, loneliness, and delinquency.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2(2), 59-76.
- 김현수, 채규창, 임연정, 신윤미 (2004). 인터넷 과다사용 청소년의 가정내 변인 연구. *대한신경의학회*, 4, 152-158.
- 남영옥, 이상준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정신건강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195-222.

- 문영임, 구현영, 박호란 (2005).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인터넷 중독 실태와 영향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1(3), 263-272.
- 박용철 (2011).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인터넷 통제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숙, 조은주 (2011).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감독과 통제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지*, 20(2), 339-351.
- 유수경 (2006). 초등학생의 부모애착과 컴퓨터 게임 중독,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승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서울: 삼성생명공익채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정연, 최영선 (2002). 청소년기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한국생활과학지*, 11(4), 335-346.
- 전춘애, 박철욱, 이은경 (200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상담학연구*, 9(2), 709-726.
- 조춘범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유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중독 척도 개발 연구 (연구보고 06-15).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14).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 결과.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iken L., & West, S.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rown, D. T., Oduyungbo, A., Thabane, L., Byrne, C., & Smart, L. A. (2010). Parenting-by-gender interactions in child psychopathology: Attempting to address inconsistencies with a Canadian national databas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4, 5-17.
- Cunningham, J. N., Kliewer, W., & Garner, P. W. (2009). Emotion socialization, child emotion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urban African American families: Differential associations across child gende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 261-283.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 487-496.
- Deater-Deckard, K., & Dodge, K. A. (1997).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discipline revisited: Nonlinear effects and variation by culture, context, and gender. *Psychological Inquiry*, 8, 161-175.
- Gardner, F. E. (1992). Parent-child internet and conduct disorder.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4, 135-163.
- Griffin, K. W., Borvin, G. J., Scheier, L. M., Diaz, T., & Miller, N. L. (2000). Parenting

- practices as predictors of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aggression among urban minority youth: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gender. *Psychological Addict Behaviors*, 14, 174-184.
- Griffiths, M. D. (2000). Internet Addiction: Time to be taken seriously? *Addiction Research*, 8, 413-418.
- Kandell, J. J. (1998). Internet addiction on campus: The vulnerability of college students. *Cyberpsychology & Behavior*, 1, 11-17.
- Kim, H. S. (2009). *The development of parenting scales to predict multiple social anxiety dimensions using a theory-driven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U.S.A.
- Maccoby, E. E. (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ical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006-1017.
- Soenens, B., Vansteenkiste, M., Smits, I., Lowet, K., & Goossens, L. (2007). The role of intrusive parent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management strategies and peer affilia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8, 239-249.
- Young, K. S. (1999). Internet addiction: Evaluation and treatment, *Student British Medical Journal*, 7, 351-352.

원고 접수일 : 2020. 02. 10

수정 원고접수일 : 2020. 03. 09

게재 결정일 : 2020. 03. 23